

트럼프-김정은 직접대화 검토…北美정상회담 조기추진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트럼프 당선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직접 대화 추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이런 새로운 외교 노력을 통해 북한과 무역 충돌 위험을 줄일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하지만 3차례 만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없이 회담이 결렬된 만큼,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의 관계를 복원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트럼프, 대선 때 친분 부각…“재집권 시 잘 지낼 것” 북미 밀착 등 대미협상 소극적 태도에 불투명 전망도

이런 가운데 트럼프측은 트럼프 당선인이 직접 김 위원장에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안일 수 있다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또 트럼프 당선인의 초기 목표는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인 정책 목표나 정확한 시간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다만, 정권 인수 단계에서 벌써 김 위원장과의 관계 개선을 검토하는 것으로 미뤄볼 때 내년 1월20일 트럼프 당선인 취임 후 이른 시기에 북미 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된 지난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누군가와 잘 지내는 것은 좋은 일”이라며 “우리가 재집권하면 나는 그(김정은)와 잘 지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 백악관 수석 국가안보 부보좌관에 집권 1기 당시 대북 협상 실무를 담당했던 알렉스 뎀을 발탁했는데, 이를 두고 북미 정상외교 재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2018년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달라져 양측 정상이 대화를 시작하는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기술을 더욱 고

도화한 데다 러시아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더욱 대담한 도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봤으며 결과에 확실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며 대미 협상이나 관계 복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또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변질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추진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어 북미정상회담이 조기에 열릴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6월30일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만나 함께 북쪽으로 넘어갔다가 남쪽으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

‘강대강’ 대치하던 이스라엘-헤즈볼라, 13개월 만에 휴전

휴전성사 발표 이후에도 이스라엘군 공습 이어져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 간 일시 휴전안이 지난 26일(현지시간) 전격 타결됐다. 이로써 오는 60일간 양측의 공습과 교전이 중단된다.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기습당하고 헤즈볼라와 교전을 시작한 지 13개월 만에 포성이 멎게 되는 것이다.

이스라엘군이 지난 9월 헤즈볼라를 겨냥한 ‘북쪽의 화살’ 작전 개시를 선포하고 레바논 남부에서 18년 만의 지상전에 돌입한 시기부터 따지면 약 2개월 만이다.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이스라엘 안보내각은 레바논에서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휴전하는 방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0명, 반대 1명으로 통과시켰다.

네타냐후 총리는 영상 연설을 통해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휴전 방

침을 설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즈볼라가 합의할 것”이라며 “우리는 이들을 공격할 것”이라며 “헤즈볼라가 국경 부근 테러 시설을 재건하거나, 로켓을 쏘거나, 땅굴을 파거나, 미사일을 실은 트럭을 몰고 오면 우리는 공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휴전 이후에도) 우리는 미국의 완전한 이해 속에 레바논에서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는 60일간 일시 휴전하면서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남부에서 철수하고, 헤즈볼라의 중화기를 이스라엘 국경에서 약 30km 떨어진 레바논 리타니강 북쪽으로 물러나는 내용이 담겼다.

이스라엘-레바논 ‘블루라인’(유엔이 설정한 양측 경계선) 국경 지대에는 레바논군 수천 명을 추가로 투입, 레바논 주둔 유엔평화유지군(UNIFIL)과 함께 무력충돌을 막도록 한다는 것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휴전 합의를 받아들였다”며 협상을 중재한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는 “지옥을 지나온 팔레스타인 가족과 주민들, 교전 중단을 맞이해야 마땅하다”라며 기자 휴전도 촉구했다.

한편 휴전이 성사됐다는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 이

스라엘군의 공습이 이어졌다.

이날 앞서서도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점령지대, 동부 베카밸리 등지에서 180여개의 표적을 상대로 대규모 폭격을 가했다.

이는 휴전이 발효되기 전에 헤즈볼라의 잔존 위협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연합뉴스



공습받은 베이루트 건물

이스라엘군이 휴전이 성사됐다는 발표 이후에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일대에 폭격을 가했다. /AFP=연합뉴스

英 2009년 출생자부터 담배 못산다

‘비흡연세대 만들기’ 법안 1차 관문 통과

영국에서 비흡연 세대를 만들기 위한 법안이 의회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다.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지난 26일(현지시간) ‘담배 및 전자담배 법안’에 대한 2차 독회에서 찬성 415표 대 반대 47표로 법안을 하원 심사의 다음 단계로 넘겼다.

법안에 따르면 2009년 1월1일 출생자와 그 이후 출생자에게 담배를 판매해선 안 된다. 현재는 미성년자에게 담배 판매가 금지돼 있으나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09년과 그 이후 출생자는 성인이 돼도 담배를 살 수 없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전임 보수당 정부에서 추진돼 지난 4월에도 하원에서 1차 관문을 통과했지만, 조기 총선이 전격 발표

되고 의회가 해산하면서 무산됐다. 당 시에는 오히려 집권 보수당 내부에서 반대표가 나왔고 노동당은 법안을 지지했다. 노동당은 7월 총선에서 집권한 이후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강력한 수준의 법안으로 평가된다. 뉴질랜드가 지난해 비슷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폐기했다.

이 법안은 하원에서 위원회 단계와 3차 독회를 거치고 나서 상원으로 넘어간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반대 의원들이 법안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일부 보수당, 자유민주당, 영국개혁당 소속 의원들은 이 법안이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60플 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농협 박배성 302-0316-649511

Tape to USB/DVD
영상변환서비스

SONY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3 보관 장소가 줄어듭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